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容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戰爭來乎
緊張된中英의關係

一

英國은二萬의大兵을 中國으로派遣하게되얏다 그들의聲言하는바에依하면 그것이中國에잇는英國人의生命財産을保護하자는 아주消極的意味를가진것이라고하지마는 英國在野黨되는自由 勞働兩黨의認定하는바와가티 消極的防禦的施設로하여서는 너무도互大하다는것을 認定하지아니할수업다 또英國駐中公使『람프손』氏는 二十六日午後四時에 佛蘭西 伊太利兩國公使와同伴하야 駐中日本公使芳澤씨를訪問하야 日本의出兵을勸誘한바잇고 또駐日英國大使『지련』氏는 數日前부터 거의連日日本外務大臣幣原氏를訪問하고 上海의共同防備를爲하야 日本의出兵을勸誘한바잇섯다

二

『나우엔』의二十五日電에依하면 英國과伊太利間에某種의密約이成立되얏다는것을 傳하야 이兩國의關係가 最近에잇서서더욱接近되여온다는것을傳하게되고 佛國은世界大戰當時의聯合國된關係上 英國과共同動作을取하게되리라는것을 말하고잇다 그런나 米國에잇서서는 下院에잇서서 『포타』氏의 決議案이通過되어서 어대까지던지米國은單獨行動을取하다는것을高調하엿섯는데 政府에서는그것을承認한다는旨를發表하엿다 이와가티되어 國際關係를보면對中國問題에잇서서 英國과同一한行動을取하게될이라는것은爲先佛蘭西와伊太利의兩國으로볼수잇고 米國과日本은 아즉時期가그와가티切迫하지아니한것을말하고 中立的態度를 取하고잇다 그러나 英國과佛國이어느程度의共同動作을取하게될는지는 疑問으로보지아니할수업스니 佛國에서는英國과共同하겟다하면서 軍隊를派送할程度에까지는되지아니하엿다

三

英國政府에서 表面으로는中國에對하야 互讓的態度를取할것을聲明하면서 그와가티軍隊를出動식힌다는것은 그로써中國을威壓하려고하는目的에서나온것만은斷言할수잇는것이니 지금勢力을얻고잇는北伐軍이英國의그와가튼態度에威脅을늣겨서漢口의英國租界를無條件으로還附하고 上海에對하야何等의權利를主張하지안는다면 英國은그한번빼던칼을그대로도로집어너흘는지알수업지마는北伐軍이조금보담조금이라도더積極的으로나아가서 『打倒帝國主義』라는旗幟를그대로가지고나아간다면畢竟中英間에衝突을보지아니치못하게될것이니 今番의英國의對中高壓的態度는 또한번다시世界戰爭을惹起할 可能性이잇다는것을 想像하지아니할수업겟스니 中國과英國의사이에衝突이이러날째에日本外지들어가서 列强이다協力하게된다면問題는比較的容易하게解決을보게될것이니 그러면一時的으로는中國의屈服을보게될것이다

四

그러나 日本으로서그와가튼態度에出한다는것은 大冒險이라고볼수밧게업는것이니 그러면爲先그利權의確保를어둡것은 英國이요日本은새로이러나오는中國民의感情을如何히하지못하게될것이니 畢竟日本의處地로보아서는 中國에對한好意的中立을取하게될수밧게업슬것이다 그리하야 隱然히中에中國이너무屈辱的態度에出하지안케하는것이上策일것이다 그러나만일米國이英國에同情하는態度에出하게되면 中日露三國의協同이全혀空中樓閣에돌아갈것은아니겟스니 一方에英佛伊米 一方에中日露 이와가티되고 또獨逸이隱然히 中日露에對한好意的中立態度에出하게된다면 天下形勢는豫測하기어려운바잇슬것이다 이와가티보아오면 中國問題를中心으로하고 다시世界戰爭이 우리門前에나타나잇는것을보는바이다 이러한形勢下에잇서서 英國勞働黨의發表한戰爭防止聲明은 果然그效果를나타낼수잇슬가?

五

一千九百十四年에世界大戰이始作되려고할째에 第二『인터내소날』所屬各國의社會黨은『戰爭에對한戰爭』을壯嚴하게宣言하엿고 戰爭이勃發하기數刻前까지도 獨逸의社會黨은 괴운차게그것을反對하엿고 戰爭이始作되면 總同盟罷業을斷行하야 그에對抗할것을말하엿섯다 그리하엿스나 戰爭이始作된後에 獨逸의社會黨은 露西亞의專制主義를防止하여야하겟다는口實下에 戰時公債案에贊成하고 祖國防禦를主張하게되엿섯다 今番英國勞働黨의宣言은或獨逸社會黨의古轍을밟게되지는아니하려는가? 우리는英國勞働黨의勇敢한行動에依하야世界大戰이 未然에防止되기를바라지아니할수업다 그들이每年十一月十一日의休戰紀念日에二分間의默禱를지히던그心理로써 戰爭에對하여야할것이다 그리하야 中國民의正當한主張을認定하게하여야할것이다

租界回收問題에
英國의躍氣運動
警察課稅共同管理를主張
日、意、嚮은單獨解決

(東京電) 租界回收問題에關한英中交涉은何等進展을보지못한外에英政府는單獨行動으로는租界의回復이困難함을覺悟하고中國全土에잇는租界와關聯시켜列國問題로하랴할양으로各國에諒解를求하고日本政府에對하야는駐日大使『치리』氏、芳澤公使에對하야는『람프손』公使로부터同意를求할양으로交涉中이며그리하야英國은列國은協同하야租界問題를解決코저警察課稅兩權을中國과列國의共同管理가可하다는主張을하엿스나日本政府는此에對하야何等意志를表示치안코右에關한諸은日中通商條約改訂會議에서單獨으로解決할意志더라

出兵을阻止코저
休會를提議!
總督聲明과自治島의態度
◇印度議會形勢險惡

(東京電) 廣東政府排英의問題에關하야印度總督은二十六日午前印度議會에聲明書를發하야 英本國은在中英、印度人을保護코저出兵하엿는데印度政府도同様의目的으로出兵하엿다라고說明하엿는바自治島는此에反對하야出兵을阻止코저議會의休會를提議하고總督은右提議를許可치안엇슴으로議會는同問題를中心으로民制改革、綿絲問題等으로形勢가險惡하다더라

紛糾한此際에
戴氏訪日은有意義

(東京電) 廣東中山大學長戴天仇氏가近近國民政府代表로서訪日함에對하야는當局尾漢口總領事로부터外務省에報告를하엿는데外務當局에서는時局이紛糾한此際에戴氏의訪日은크게意義가잇슴으로勿論이오氏의訪日을歡迎하고國民政府의意思를充分히듯고또한日本政府의真意를披瀝할터이라더라

又復流會된
日中通商交涉
議案은次會에서續行

(北京二十八日發) 日中通商條約改訂交涉第二次會議는二十八日午前十一時半부터外交部에서開會後關稅問題를商議하엿스나流會되엿슴으로次會議에서審議를續行하기로하고二十八日의議에는何等具體的條文은附議되지안엇다더라

中露國境
赤軍移動說
某國宣傳

(哈爾賓二十七日發) 露西亞가露中國境에赤軍移動을開始하엿다는報道에對하야當地勞農側에서는目下中國에잇는勢力을顚覆하려는某國의宣傳이라고하더라

各派幹部에게
對中問題說明
幣原外相으로부터

(東京電) 二十八日衆議院豫算總會終了後幣原外相은新正俱樂部關直彥氏의斡旋으로衆議院圖書館樓上에서各派幹部十名內外式參集시켜幣原外相으로부터中國政情英國租界問題及日本及列强의態度日中通商條約改訂問題

……等에就하야詳細한說明을한後出席各員으로부터質疑와質問과意見을開陳한바잇섯다더라

鐵道局線調查
來年豫算七萬圓

鐵道局에서는鐵道網十二年計劃進捗에伴하야調査課는자못多忙한데來年度부터着工할建設豫定線의實地調查는別로人員을增大하야施行되겟고目下此의準備中인바從來經濟及線路調査는每年五六百哩式完了할豫定으로먼저來年度에는經常部豫算에七萬圓을計上하엿다한다 그리하야本年一月十三日부터同班의一部는金泉부터居昌、咸陽을經하야晋州로出하고다시千山浦에至하는百七哩의調查中인바同線은慶里부터大邱에至하는線보다도工事가容易한데다가經濟的으로도有利하야以前經營線의目的으로調查하려도잇섯스나今次는更히廣軌敷設로하라고踏查하는바同線은아직別로認可申請은업스나不遠하야將來에備하기爲하야한다는데此調查完了에는二個月間을要할豫定이라고한다 더욱來年度는먼저雄基、淸津間 茂山、合水間、惠山鎭、北靑間、新義州로부터慈城에至하는國境의線路及經濟調查를各班에別하야完成할計劃이라더라

寧邊國有林
伐採權讓與問題
地方經濟上重大한問題이다
讓受希望者를物色中

平北寧邊郡에는約二十萬町步의國有林이잇서벌서大正九年度에同地方民들이그伐採方을請願하엿고京城材木商組合에서도이에加入하야激烈한競爭을하엿스나入札한結果東京에잇는渡邊勝三郞에게落札되어同氏는一個年分의拂下代金과 翌年分의 保證金를上納하엿섯스나그의後界不況인外닭에드듸어八年동안을지난今日에도未着手한대로던저버려두엇섯는데前番에鎭南浦富田儀作氏가東京에가서渡邊氏와會見하고該森林伐採方에對하야懇談을거듭한結果 渡邊氏는伐採權을他人에게讓與하고前記한上納金과保證金은第二의經營者에게賃付의形式을取하는故로 富田氏는目下 도조타고 그讓受의希望者를 物色하는中이라는데 만일第二經營者가나와서伐採에着手하면內部平南의富源開拓에莫大한關係가잇슬터이라하며昨年十月初에日本山林大會가京城景福宮안에서열리고日本林業界의權威者란사람들이至朝鮮重要한林產地를大擧視察한後그들의도마우에올려버린朝鮮의山林에對하야一般은뒤숫게注目하기시작하엿거니와左右間 地方經濟上으로 보아서도 못지 大한 일이며그의伐採를마치기까지는約四十年이걸리겟다더라(平壤)

雲田勞働會創立

咸興郡雲田面에서는去廿四日午前十時에當地李祖本宮內에서第一回創立總會를開催하엿는데出席會員이百四十餘名이엇스며臨時議長文錫武氏의司會下에規約通過와經過報告가잇섯스며遠近各地의友誼團體로부터만흔祝電祝文과來賓諸氏의祝辭가잇슨後議案通過와左의委員을選定하고同日午後三時에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咸興)

執行委員 韓流濟 金斗定 申相朔 韓鵬容 李益淳 文鍋斌 文世運 申學益 朱珣

舊年末
安州市況
比例年不景氣

舊年末을當한安州市況을調查하건대各方面으로보와例年에比하야約三割減少의實賃가된다는바此를各別로分하여보면

綢緞布木界 例年에는舊年末을當하면低廉한布木보다高貴한綢緞이多數히放賣되엿스나今年에는各商店買賣이大槪가布木뿐임으로相當히興盛한듯하나商店收入은昨年의八割밧게안되며反面에一般의心理가突變하야奢侈品을排斥하고素朴한便으로도기우러짐은此亦大勢潮流에避치못할事實일것이며

米穀商界 今年景況은平年作以上의豐作이나穀價가低下된外닭에外村農家는勿論米穀小賣商이나實需者에比하야……

海產物界 不況이今年인外닭에商家에餘裕가잇슴을엇지못하며此亦近週에는閑散하다하며實業界는一時傾向을呈하는現狀이라하며販賣店收入이例年에比하야約七割밧게되지안는現狀이라……以上의狀況을呈하는中全般的으로安州市의實賣高가例年에比하야七割밧게되지아니된다더라(安州)

正友會宣言에對한
東北勞聯決議文
從來의協同戰線을拒否하고
前進會檢討文에贊同

東北勞働聯盟에서는正友會宣言에關하야執行委員會를開하고지난十三日開催한結果그決議文은左와갓다더라

◇決議文

지난해十二月十五日正友會에서發表한政策宣言에對하야參考한結果該宣言第三項은妥協的又는改良的民族運動者와同盟的提携를今般政策으로樹立한것을判斷하얏다 此에對하야正友會는朝鮮社會運動界에서指導機關으로自處하는○○主義團體로서變節하야右傾運動으로方向을轉換함을認하는同時에從來協同하여오든協同戰線을拒否하고前進會檢討文에贊同함

元山勞聯도
正友會反對
標語까지制定

元山勞働聯合會에서는廿七日午後一時부터同會館內에서執行委員會를開하고正友會宣言에對하야左와如히決議하엿다더라(元山)

◇決議文

지난해十一月十五日附正友會宣言을熟考檢討한結果其三項民族運動에關한政策은朝鮮民族運動을右傾的으로誘導하야朝鮮民族運動으로하여금墮落의形態에陷케할을認하고此를絕對反對함

我等은從來端아오든바○○的政策을支持하는同時에今年一月二十二日附前進會의決議에協同함

◇標語 (略)

最近平壤物價

品名	單位	價格
穀	百斤	八圓三〇
和金巾九龍	二十疋	二二圓七〇
晒金巾九枚	五十疋	七二、五〇
法緞上十五碼	一疋	二九、〇〇
寧綢上	一疋	一〇、〇〇
同 並	一疋	六、〇〇
鹽(官鹽百斤一叭)		一、四〇
牛肉豆	一么百匁	、七〇
鷄卵	百個	四、三〇
朝鮮紙	一卷	六五
同 下		二〇
石油貝印	二斗入一箱	七五
木炭上	十貫	二、五〇
並		二、一〇
煉炭二穴	千二〇個	二〇、六〇
三穴		一八、三〇
卵形		一八、五〇
塊炭	一噸	一九、五〇
白米一等	一斗	三、四〇
小豆	一斗	一、二〇
燒酒三十五度	一升	、六〇
豚肉	百匁	四〇
牛肉上	百匁	五六

(平壤)

……商工業者를爲하야何等의實益이無하니그存在의意義가何에在한가? 一例를擧하면 前者平壤府에對하야何等의手段을講究치아니하얏다』하엿스며 ……不信任이라고…… 原稿豫算에對하야六百圓을減額하고修正案을可決한바그豫算額은
▲歲入 一萬九千四百三十圓
▲歲出 一萬九千四百三十圓
그리고經費賦課徵收規程中第四條賦課金은會員의營業稅納付額의百分之三十七으로하기로하고午後六時에閉會하엿다더라(平壤)

南海南面
普校期成會
擧面一致運動

慶南南海郡南面은南朝鮮의最南端에잇서一千七百餘戶나되는巨面이나아직까지教育機關의施設이不備하야幾個의有產子弟만은隣近面約二十餘里되는學校에寄宿通學하나多數인無產子弟는全혀배울곳이업서恒常家力不足함을嘆息하고彷徨하든바배우지안코버릴수업다는것을漸次覺悟한一般有志는同際同時로面內에初等教育機關도업슴은甚히羞恥라하야南面普校期成會를組織하고去十六日當地面事務所會議室에서同會創立大會를議長金寅奭氏司會下에開하고姜大淵金麟洙兩氏로부터準備經過報告와事業進行에對하야熱辯이有한後即席에서有志十四人이同盟하야土地法定地價一萬五千圓以上을道郡當局에擔保하기로即決하고同午後八時에散會하엿다는데決議事項과被選任員及土地寄附人士는如左하다더라(南海)

◇決議事項
一、本會는教育의本義를體하야國民의義務를修하며人格을養成하야實際生活을圖하고同心協力하야南面公普校를期成하기로써目的함
一、本會員은本面에居住者로서義務的으로入會함
一、本會員은總會의決議에依하야事業費又는會費를醵出할義務가有함
一、今般本會의創立에對하야會則에秋毫라도相違가업시恪守함은아니라本面名譽를失墜치아니하려함을實誓함

◇任員
▲會長金寅奭▲副會長姜大淵……

◇土地寄附人士 ……金璇洪▲金載俊▲朴寬植▲金性在▲任鍾淑▲李廷孝▲梁琪煥▲金聖新▲河實俊▲河在涉▲姜玟洪▲朴琮銖▲金宗鎬▲禹…… 外數人

在東京朝鮮
女青創立
綱領規約通過

在東京朝鮮女性思想團體三月會가그의役割을終焉의鍾소리를치자발자그들은다시各方面의女性靑年五十餘名을網羅하야지난十六日東京府下下戶塚一〇七番地에서臨時議長沈恩淑氏司會下에東京朝鮮女子靑年同盟創立總會를開하엿는데各友誼團體代表의祝辭가잇슨中特히『女性解放은無產階級解放이아니면아니된다』는全日本無產靑年同盟婦人代表伊藤女史의熱辯은一般聽衆으로하야금一層緊張케하엿스며順序에따라서다음과가튼宣言綱領及規約議案을通過하고委員을選擧한後無事閉會하엿다더라

◇綱領
一、本同盟은朝鮮女子의經濟的社會的利益의獲得과地位의向上을期함
一、本同盟은本組織된朝鮮女子靑年大衆의組織의促成을期함
一、本同盟은朝鮮女子大衆의階級的教育訓練을期함

◇宣言(略)

◇議案
一、會員募集에關한件
一、會員教養問題에關한件
一、對外問題에關한件
一、會費問題에關한件
一、會館問題에關한件
一、機關紙에關한件
一、體育問題에關한件

◇役員氏名
▲執行委員長 沈恩淑 ▲庶務部 韓晟光 梁鳳順 ▲經濟部 金吉煥 禹班祚 ▲宣傳組織部 金長出 鄭甲順 崔東伊 ▲圖書出版部 李春姬 金斗順 ▲調查部 金正希 盧南嬌 ▲體育部 姜平國 金彝實(東京)

蒼湖洞團合會
勤儉貯蓄의美風

京畿道廣州郡東部面倉隅里에서는지난甲子年陰十一月부터數十名의發起로蒼湖洞團合會를組織하고每月二回에分하야一回에二十錢式勤儉貯蓄하기로하엿는데現時該里區長李昌夏氏는洞里에서收穫하야주는稅穀을自辨하야自己가區長在任期外지그會에寄付하기를하고(每年春秋穀並하야五石) 規約을定하야會務에努力한結果今日에는數百圓의貯金이되엿다는데그目的은그收入金으로서利하야日後會員에對한各項稅納을補充하고또한會員은勿論이오會員外라도不意의災殃을分입어絶境에빠진慘狀한者를萬의一에도同情하야相扶相助하리라는바一般附近人士는그團合會의아름다움과會長李昌夏氏의特志를感謝한다더라(廣州)

麻谷寺主持
兪寅明氏再選

公州麻谷寺라면忠南의大本山이요象하야一千五百年前에建設된것으로全鮮에자랑할만한寺刹도三年前에住持兪寅明氏가免職當한後主人일흔寺刹이되아爾來紛擾爭鬪가一日도긋칠날이無하고所謂任員의任免은朝夕으로變動되야그悽慘한狀態는이로形言할수업는中更히昨年十月에住持投票選擧에對하야寺中功務와名際維持하든元住持兪寅明氏가再選되는同時一般僧侶、歡心이滿腔하든바于今總督府로부터認可가發表되지못하엿는데이에對하야一般은愈往持認可만苦待한다더라(公州)

咸南米
日本移出高
昨年中 一九九一二六石

昨年中咸南道穀物中日本에移出된米는元山港으로부터十三萬二百四十一石, 西湖, 新浦, 新昌三港……

平壤商業會議
明年度豫算案通過

平壤商業會議所에서는定款上今月中에明年度豫算案을通過치안흐면總督府로부터認可가잇는關係上去二十七日에評議員會를召集하엿스나出席하는議員數가定數에不足하야流會되엿스며三時에至하야僅히半數出席으로開會하엿는데劈頭議長金鉉君의開會宣言에對하야議員으로부터黃學永君의平壤商業會議所는그機能을遂行치못하는處로서調查費等을全部削除하라고猛烈한攻擊을하엿스나그大旨는『平壤商業會議所가平……

極貧家庭에태어나
成家致産十萬圓
─中國貿易에뜻을두고 單身奮鬪로畢竟成功─
貿易成功者 素砂 崔炳熙氏
事業成功者紹介(五)

要成功者寫眞添付

◇朝鮮人으로商界에活躍하는사람이相當히만타할것이다 또한成功한사람도만타면만흘것이다 그리고斯界의覇權을잡은드시自處하는사람도잇슬것이며 斯界의巨頭라고指目밧는사람도不少할것이다 그러나 大槪는日本人의商品媒介者에不過하고또한日本人對朝鮮人間의中間識利者에不過하다 이제紹介코저하는사람은純全히 日本人의 商權의覇絆을 버서나서 朝鮮物産을中國으로紹介宣傳하고또는中國物産의適當한것을朝鮮으로輸入하는 他商業家와그趣向이다르고色彩가다른中國相對의貿易業者輸入商인仁川商界의重鎭崔炳熙氏이다 氏는咸鏡北道鏡城郡村面鳳老洞出生으로서元來貧家의子弟이엿든바어려서부터애옥살리에부대저世上의쓰린맛을골고로맛보앗든것이다 그럼으로氏의今日과가튼成功의秘訣이그時부터숙김히싹터잇든것이야 또한알수도업섯슬것이다

◇氏가壯志를품고父母를따라故鄕을떠나기는氏의十四歲時이다 父親은父親대로京城에서苦學을하엿든것이다 그러나世上은氏를虐待하야一掬의同情도업섯다 그리하야滋苦하야强剛한것에實로形言할수업는으로氏의굿건한壯志에도疑惑이잇섯든를울지우고늣긴적이한두번이아니라한다 그리다가도自己의意志를自己가嚴責하야다시事業의成功을바라고苦學을거듭하엿스나物質苦痛은갈사록더하야到底히支撑할수가업섯다 氏는百而思之하다가實業界로들어 奮鬪하야後日의成功을어드려하엿스나 알을마는것은資金의缺乏이다 分錢이업는白面書生이라어느곳에서能히自己의遠大한抱負와千든意思를理解하야줄것이냐? 他人과뜻이特異한氏는더보려하야大正二年에某會社外交員으로自勸入社하엿다 그러나 學業을廢하고自力으로資金을이바지할수가업서到底히所要資金을貯蓄할수업섯다

◇그러나氏는質朴한特性이잇는咸北出生인만큼그意志가堅固하엿다 모든艱難辛苦와風霜雨雪이라도氏의壯志를屈服할수는업섯다 奮鬪努力六個星霜에分分錢錢히모흔것이 三四百圓에達하엿다 氏는이것이數千萬圓의資金을어든것이라고 깃버뛰면서 大正七年부터 仁川支那町에中國雜貨輸入商을 小規模로經營하게되엿다 그러나無心한天道는氏를爲하야 繁光을주지안엇다 大正七八年好景氣時代에氏와가튼零細한 資本으로能히日本大商과相對할수가업서그나마全部를失敗하고 分錢이업게되는同時에 當時相當한資本을가진 朝鮮人雜貨商들은거의全部가失敗를當하엿나니 氏는血淚를뿌리며 不過之嘆을禁할수 업다 다지 某雜業組合에 係給者로들어갓다 이것은 氏가壯志를達成하라고 決心한所產이다 氏는一方으로俸給中에서節約貯蓄하야 資金을準備하며反面으로中國語를研究하야後日中國商人과의直接折衝의武器를만들고잇섯다

本報四個月分贈呈

◇이와가티하야 氏는다시大正十二年부터 또다시同業에着手하엿는데 元來中國商人은疑心이만코 또는 賤心이만허서凡然한사람으로는 能히그信用을엇고去害를免하기가 極難한바氏는 能히信用을 얻게된것이 方今은中國人의 信用함이 자못 鞏固하야 仁川에오는 中國商人은 반듯시 氏와 去來를한다리라고하야지금은 十餘萬圓의財産家가되엿다 去來商品은中國芝罘港의有數한貿易商인 統聚昌과特約을하고 또 當地某中國人 豐田과 結托하야 原鹽及粟米의 輸入과朝鮮米穀及生産品輸出等을爲主하는一方地方小賣도한다

◇仁川埠頭에들어오든蔣千集의 『成克船』이아닐든 氏의獨活舞臺의道具가되니 全朝鮮에 퍼지는 粟反粟米는 또한氏의一影이며으로지안흘이업다하여도過言이아니다 氏는一見中國人과恰似한데 氏의經營하는 商店名조차『同順公司』라는 中國風의題名이다 아ㅣ氏는單身奮鬪하야 能히成家致富하고 또한商業的手腕은멀리 中國까지 傳播하엿다 氏의平生의奮鬪史는果然그光彩가燦爛하다 快漢崔炳熙氏여! 奮鬪하고 益壯하라 (素砂K生)

選者評 事業失敗는全혀時代의所致이냐 或은人爲의不足이냐하는것이이成功者紹介文으로서發見할수잇는各個의各鍵인事實이될것이다 그리『엇더케』하여야 成功하겟느냐와마찬가지로『엇더한』사람이成功하겟드냐하는것도重要한對究條件이다 이분의事蹟에서는『엇더한』사람이成功하겟다는啓示를보겟고『엇더케』의問題는잘아서解答되는가한다 다만失敗成功의敍事文이不足하엿다고생각된다

投稿繼續受理

汗浦初有의
少年氷上競技
本報支局主催로 陰正月三日禮成江에서

黃海道平山郡金岩面汗浦里本報支局에서는新年勞頭에少年諸君의血氣를도읍고저汗浦에서初有의氷上競技大會를開하고스켓쉬매!의各種競技를陰正月三日에當地禮成江上에서開催할터인데汗浦少年들은多數參加하기를바란다(汗浦)

釜山注文津間
朝郵船增航
交通不便緩和

朝鮮郵船株式會社에서는現在東海岸交通에從航하는三船外다시物貨의運輸가頻繁한釜山注文津間을宗信丸으로써增航케되엇는데郵便物은取扱치아니하나從來의交通不便은多少緩和되리라더라(三陟)

一新女高普
寄附未納訴訟
三月一日로延期

晋州一新女高普附金未納者에對하야去月同校理事로부터遂히訴訟을提起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同事件을釜山地方法院晋州支廳에서本月廿五日에審理하려이엇는데訴訟申立其他事情으로三月一日로延期하엿다더라(晋州)

廣州小學生表彰

廣州郡內各學校의生徒中品行이善良하고成績이優秀한學生에게進兒賞獎學金으로去廿六日에各學校內에서表彰及賞品授與式을擧行하엿는데受賞한學生은左와如하다더라(松坡)

松坡公立普通學校 第四學年生 洪丸吉
松坡小學校 第四學年生 幡井一男

社告

今般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記者를任用하얏사오니一般愛讀諸氏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舒川支局 記者 羅晥春

本支局總務兼記者金龍珠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옵고左記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信川支局 總務兼記者 金振弼

今般本支局에서業務를擴張키爲하야左記와如히記者를任用하엿사오니諸位는照亮하시옵소서
朝鮮日報尙州支局 記者 沈嫌

今般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集金員을採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沙里院支局 集金員 洪昌信 集金員 金仁澤

映畵小說 白衣人 【八】
李慶孫 作

괴호와 녀자엽헤는 갓쉰시골중로인들이 와서안자 차는 떠난다

그분들은 아마 이던거장에서서로맛난모양인데 떠드는목소리가여간얼청나게큰것이아니다

『자네 지난번잣날면서괴하고다투엇다데그려』

『아 세납표나온것을보니작년과올이 갓단말이지 올에는네ㅣ기 다팔어먹은 놈의세납이엇재작년팔어반이람그래말다되나 질문이으로 햇답니나마억기라고! 나마억기?! 그래악이밧작난판에 비려 먹을ㅣ그녀석의부랄을잡고느러첫네그려』

괴호는 웃고십흣엇다만 그분의말하는솜시가 너무나 천한듯하여맛을노코 웃지를아니 하랴들엇다 녀자도그러한지 빙그레웃는괴호의 얼굴을향하야 약간의눈우숨을뛰엿다

그통에괴호는 녀자에게 말거러볼 허가스장이나 어더들은듯십허이괴회를아니노치랴하엿다

『참 어듸서타셧습니까』

『──서요?──』

녀자는 말의 전후에 상당한 여유를두며 대답 하엿 스나그것이 결코 붓그럼에서 나온 괴색은아니엇섯다

『동경서옵니다』

『동경요? 동경이라면 커도잇든곳입니다』 하여서는 아니되흔아는괴호는『네』하며 위선 반기여할현으로 웃막아두는대신 그표정을비려다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악가부터 픽 가티 말슴해보고십허하면서도……』

한다음 웃은웃숨에 흐려버렷다

녀자는녀지역시 약간은……』하는듯이 표정으로 대답일째 괴호는외투안으로 손을너엇다 신문기자의명함은 쓰내기쉬운곳에 너허두는법이다

『김괴호입니다 이러한 낫칙스러운 가다각기쓰잇는것을 드려서……』

녀자는 손을명함 내어 밉써 얼골에는보시못하든 붓그럼이가득한것을 괴호는보앗다

『김영자입니다』

김영자면 한눈자르는설때(金英子)이터하리라하엿다

『어느학교에 계셧습니까』

『안요 공부하지안습니다』

『서울 댁이세요?』

『안요……』

더다시불으면 묘사하는자의 태회와가티서 그만두엇다

『참 남대문서 내리시지요?』

『네 경성역에서……』

녀자는또다시 한말이 잇스면서 못다내는 얼골이엇다 그리잔는자서 빙그레웃고는 녀자는다시금 입을여엇다

『룡산서 내리시면 아니되시겟지요?』

『네?』

『안예요 선생님께 청하고십흔게잇서서 그럽니다』

『네──?』

자기는룡산서 내릴려인데 감이엇다는 말인줄은 알엇다마데 엇더한말을 또하엿지 추측카어려운일이엇다

『남대문서 내리기가 실혀서 룡산서 내린답니다 남대문역에잇는 형사들은 대감통케얼골을아니까 그래서 실혀요 서생님과함께 나가면 귀호자이러하학생도 아닌줄으로동경표를 내엿느니보나 주목이덜하겟지요? 룡산서들은 몰라요』

괴호는이제야 알어들엇다 그리고이녀자의 신변에는 여러가지 자미잇는일이 판던되여 잇스리라하엿다

『사회운동을하런가수갈니까』하면서 속으로는 너도그러쿠나 하엿다

『안ㅣ요 제가무엇을요……옵바가모쓰코바에좀잇섯다고그런답니다 저야조엄지요만공연히구찬케들구려요………』

괴호의마음은 칠거웟다 적편사회운동을 하는녀자라고 미리짐작든악가 그순간에는『너도그러쿠나』하엿지만 그러치가 안코 『혁명가의누의동생』이라는넘을듯고보니 엇전지 더한층다정을느끼엿다

『옵바는지금어데게신가요?』

『옵바요?──글세 지금은어대게신지 벌서 편지못바든지 일년이 넘습니다』

그순간 괴호에게는 로서아소설들중에 이러한경우와 비슷한장면들이 머리안을 지내가고잇슬때 벋안간 요란한소리를 내면서 보니 차는지금한강을 건너고잇다 짝!소리와함께 차창을때릴듯이 덤비는 검은쇠기둥이한무게 뒤로 밋그러저나가는 사히도 멀니보히는 룡산시가의밤경치는 몹시도 룡롱표가려버려지엇다 『인제는다왓습니다』 소리를아니한들 누구나 이번이룡산역인지를 모르랴 그래서괴호는함께 내릴것을 예산하엿다

基浩……李紫然
霧子……金靜淑

中國動亂을目睹한 獨、伊青年의講演

들으라! 소득이만흘강연을!

通譯은申興雨金俊淵兩氏

중국장심을 자던거에 의탁하야 삼년간에 사십이개국을 력방하고 이십사일오전아홉시에 경성에도착된리태리(伊太利)커슬가 학생「안토니큰낭젤」(二二)씨와 독일의「이기니아、지벨리노」(二六)씨 두청년은 드디어 금이십구일 오후칠시부터 본사와중앙청년회와의 련합 주최하에 종로청년회관에서 열기로 되엿는데 두차보도한바와가티동두청년은「아푸리카」「아라비아」「메소포타미아」「페르시아」「인도」「마래」등 사십이개국을력방하엿슴으로 그에대한 풍토사정능력사뎍또는 디리뎍으로 우리에게만흔 취미와 리익의도움이잇슬것은 물론이요 더욱이최근세계각국의 위정자의 이목을새롭게하는 화북충돌의 대표뎍운동인중국동란의중심부대인한구(漢口)부창(武昌)등지까지상세하게목도한내막을소개하겟슴으로 청중으로하여금만흔흥미 늦길것이예상되며 더욱이태리청년의강연는 신흥우(申興雨)씨가 통역할것이며 독일청년의강연은본사김준연(金俊淵)씨가 통역을 하기로되엿다

各國志士의『싸인』과寫眞도

일반령중에게공람시켜

收入으론自轉車를買贈

별항과가티 사십이개국을 력방한 리태리 독일의 두청년의강연! 이강연이야 말로종처럼 어더듯을수업는강연으로써우리로하야곰 쾌자리에 안저서각국 의풍토사정과 더욱이최근 우리의흥미를 솟흥게하는 중국의 동란을목도함과 다름이 업시 알수가잇는데다가 또다시 그위에이두청년이 력방 각국의 풍토사진과 각 명사에게 어든「싸인」등을 청중에게 보이기로하엿스니 청중은또한총례에업는 소득이잇슬뿐더러 휴게시간에는 경성방송국에서 방송하는「라디오」도 청취할수가잇스니 이번 강연이야말로 또다시는 어더 듯을수업는 강연이것스며 더욱이 입장료금으로 이삼전식바든것으로는 그두청년에게 최신식의 자뎐거한대식을 사서주기로하엿다

고 전긔공부등의친족을 됴사하는중이라더라(평양)

朝鮮布木商人도『메돌』法使用하라

京城府에서通牒

하편경찰에그취톄를의뢰

「메돌」법이실시된지 오래되엿스나 조선에잇는 포목상인들사이에는 오래동안의 습관과또종래의척도범을존중하는경향으로 표변으로또는 번뎍의도량과를 설처하기는 하엿스나실상은 견포류(絹布類)는일척六촌、면포류(綿布類)는 일척칠촌으로 하야 거래하며 신도량형법령(新度量衡法令)에의한 ○(五)「메돌」척과 겨우오분가량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개량치안흠으로 경성부에서는 이십칠일에경성포목상조합장에게「메돌」법사용에대한 주의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한편종로서에 대하야그에대한 취톄할것을 의뢰하엿다더라

汽車에轢死

지난이십륙일 아츰봉텬역(奉天行) 급행렬차가신의주에서구마일가량되는 지뎜인 의주고진면 서재동 義州古津面瑞(?)洞 백마석하(白馬石下)사이에서조선인로동자로 삼십오륙세 가량되어보이는 사람이「네루」(線路)를 버개로하고 누엇다가 급행하는 긔차에 치어서 머리가깨여지며 노가나와서 현장에 즉사하엿다는데 그자는 한신분간정거후에 떠낫다고(선천)

金化平康에 腸窒扶斯蔓延

강원도김화평강 (江原道金化平康) 두골는장질부사 (腸窒扶斯) 流行感冒)가 발생되어 사망자도불소하고환자는점점만연하야 일반은 불안이지난다는데 더라

人妻를亂打한 橫暴한日本人

필경상해죄로고소당해

시내죽첨뎡(竹添町)이뎡목륙십오번디웃곡熊谷「하츠」(四〇)는 시내신뎡(新町) 십이번디동정등 사랑(岡井慶四郞)(三四)을 이십륙일에 시내 본뎡서(本町署)에 상해죄로 고소를데긔하엿다는데 그내용은 전긔동정등사랑의첩 무야정자(茂野靜子)(二六)와 작년구월부터알게되관계상 자연 동정동사랑과도 면분이잇게되엇다 그런듯 지난이십삼일 오후한시경에 전긔 웃곡「하츠」가 시내영락뎡(永樂町)이뎡목 송뎐삼랑(松田三郞)이라는 사람의집에 놀러갓던바 그때마츰 전긔동정등사랑은 하등의말 업시 돌연 그녀자를너머트리고 얼굴과억개와 허리를란타하야 필경인사불성에 빠지게하야 그집주인 송뎐의안해의 도움으로 영락뎡본뎐병원(本田病院)에수용되어 드듸어소생되엇다는데 그원인은 가해자동정등사랑의 본처가 얼마전에군산(群山)으로부터경성에몰아오게된것은 피해자웃곡하츠와 자긔의첩이 엇더한중상뎍 긔별을 한것에 불과이 업다하야 그외가를실정을 보게된것이라더라

苦草가루強盜

룡천군에서체포해

얼마전에 룡암포(龍岩浦) 연초전매국(煙草專賣局)에서고용하는중국인이 담배를운반하는 도중에 엇던젊은자한명이나타나며 눈에 고초가루를 색리고 금전을빼앗으려 하다가 목뎍을달치못하고저우담배한갑을 가지고 어데로 도망을 하엿슴으로 소관 경찰서 에서는 그를 엄탐중이던바 지난십구일에 룡천군외상면뎡거동(龍川郡外上面停車洞)백삼번디에서 목수(木手)일하는류긔성(劉基成)(二〇)은 남시(南市) 주재소에 데포되야 이십일에 룡암포경찰서로 압송한결과 사실을자백함으로 일건서류와가티 지난이십사일에 신의주 (新義州)검사국으로압송하엿다 더라(룡암포)

病든男便爲하야 採薪途中轢死

충북선렬차에생긴참사

충남연기군 조치원면 조치원리 (忠南燕岐郡鳥致院面鳥致院里)에거주하는황치삼(黃致三)(六一)의처 리치구(李致九)(五一)는 자긔남편인 황치삼은 병에누어잇고 엄동설한에 째일나무가업서 지난이십오일설한풍에 가마니를엽헤끼고 산에가서 나무를 하야가지고 오다가 조치원역부근(鳥致院驛附近)충북선조천교(忠北線鳥川橋)에서동일오후다섯시반 충북렬차에 갈리어죽엇다는데 그렬차는 멧호의렬차인지아직모른다 더라(조치원)

漁船一隻遭難 船夫四人溺死

손해총액이사백원가량

忠南藍浦海岸에서

련일 폭풍으로 각디의소동이심하던바 보녕군남포면룡두리(保寧郡藍浦面龍頭里) 연안에서 어선한척이 파괴되엇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 드건대동군대천면 신흑리(同郡大川面新黑里)에거주하는 유진선(兪鎭善)의 부자와동군동면동리(同郡同面同里) 강례홍(姜禮弘)김천준(金天俊) 사인이 금월칠일경부터 출어중이더바 회도 중에금월십오일오후두시경 지 폭풍에맘리어 곤난을격다가 드듸어 동군남포룡두리 연안에서 편파파쇄를 당하여부사인 이악사한것을신흑리(新黑里)구장천재진씨이하수이명이수색한결과 시톄를 발견하엿슴으로금월십칠일에 경찰당국에서 검시까지한바 조난악사자로 판명되고손해액은사백원가량이라더라

平壤에 食刀强盜

륙십원강탈

지난이십칠일오전다섯시십분경 평양부하수구리 (平壤府下水口里)이백이십이번디 평안제유소(平安製油所)김성봉(金成泰)의 집에검은복출보를 내려쓴 강도두명이 각각식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주인을협박하고털궤속에 들어잇든 현금六십원과 금지환(金指環)한개를 강탈하여가지고 즉시종적을 감추엇는바이급보를들은평양경찰서에서는 좌등(佐藤)수색계주임이 총지휘하야비상소집을하여가지고 현장에급거출장하야엄중한수색을하엿스나동일정오까지에는아모단서를엇지못하엿든바오후한시경에 부내류뎡(柳町)이십팔번디 조용환(曺用煥)의면옥(麵屋)에서 고용으로잇는 강덕립(康德立)(三一)을 혐의자로 톄포하고 엄중한 취됴를한결과 그범인으로 판명이되엇는데 그범인은 작년가을에 전긔제유소에서 약일개월동안 고용사리를 한자로 그집내용을 잘아는자라하며 공범인박○○(朴 ○)은전긔강덕립이가 톄포되든 현장에서서교리방면으로 도주하야 아즉종적이묘연하다 더라(평양)

李王職長官後任 李軫鎬氏가有力

학무국장의후임은 전남지사석진형?

리왕직장관 (李王職長官) 후임문제에 대하야는 그동안 당국에서권형한바잇섯는데 최근에 이르러 학무국장리진호 (李軫鎬)씨설이 가장유력하야 미구에그것이 실현될노양이라하며 더욱이학무국장의 후임은현 전라남도지사 석진형(石鎭衡)씨가될모양이라하며 뜰아서 최소한도에서 지사급(知事級)의 경질이잇슬모양이라더라

◇안해다리러갓다 妻男에게매마저◇

안주군신안주면 원흥리(安州郡新安州面元興里)에잇는 차성권(車聖權)이란사람은 일즉이 상처하고 작년사월경에 안주군동면맹주리(安州郡東面孟州里) 김긔덕(金基德)이란사람의딸 보부(寶富)(二二)와 혼인하야 지금까지 가티 동거하여 오던중얼마전부터는 그의안해 보부가나만혼남편과 가티살수업다고 자긔의친뎡으로 돌아가서는 일향오지안흠으로 지나간 이십오일에는 처가인맹주리로 차저가 안해를 다리고가겟다고 하엿스나 안해는 돈이백원을자긔아버지에게주어야가겟다함으로후일되는대로 보줄터이니오늘은 가티가자고손목을잡아끌엇더니 그의처남들이달려들어함부로란타하야중상을 내이게 하얏슴으로 차성권은 분하야고소를제긔하리라더라(안주)

三菱炭鑛 慘事續報

세명이죽어

긔보＝지난이십오일정오에평남대동군 룡산면 룡봉리(大同郡龍山面龍峰里)삼릉탄광(三菱炭鑛)에서 경편텰도 부설 공사를하든중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어 다수한사상자를 내엇다함은 긔보한바인데 그후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경편 텰도의 부다를다기위하야 룡악산(龍岳山)서록(西麓)에다이나마이트 오십개를 뭇고발굴 도화선에불을 질럿더니 폭발하는 지음에 립래빈

내고장의人物과傳說 (九)

魯鈍으로嘲弄밧고 勤勉으로成功

＝장난이심하기로날청만부리더니 뭇업는근면으로됭은의영광어더＝

◇德源名士 金鳳祥 逸話

◇김봉상(金鳳祥)은리조숙종(李朝肅宗)때의 사람입니다 모양이원래 험상궂게생겨 귀인성이 업다는것보담은 누구나보든지 징그럽게여기게 되엇습니다 그중에도 더욱이재조가 어찌나 로둔한지「곰」이란별명은 면치 못하게 되엇 데 재조는업지마는 의견은초초치안하 으졋한말과 어긔똥한작란은 어려서부터 어른들의 마음을 놀래게하더랍니다

험상구진작란에 행인만조롱하야

◇그가 여덟살쩍에 어느녀름날 큰길가에서 동모들과 작란을할때에 길가든행인이 아이들의작란하는양을보고그중에데일 험상궂게생긴김봉상에게흠좀 보라고「이놈봐라?」고무서운 말로을러대엇습니다 그말을 들은 김봉상은「나는본래볼일업는것은부섭지안타」고당돌히대답하매그 행인이「그러면너는무엇이무서우냐」고다시물엇습니다 김봉상은 현연스럽게「눈부릅뜨는 것이데일부섭다」고 대답하니그행인이 고만갓스면조흘것을그행동을 또보라고 눈을딱 부릅뜨고 고학치는바에 김봉상은 모래를 한줌 움켜쥐엇다가 그행인의부릅뜬 눈에다 확뿌리고 다라나는 등의작란을일수하더랍니다

千字두자식배워 둔쟁이별명까지

◇김봉상은 열살부터 글배우기를 시작하엿스나 엇지나둔하든지 누구에게나 사람못될것이라는 말을 마라노코 들엇습니다 다허욱으로 천자(千字)를 배우는데 하로녁 두자식 한출도 못다 배우고 두자식을 배워천자 한권을 삼년만에야 겨우다배우고 바로 보사략(史畧)초권(初卷)을 배우는데 그것도한줄식도 못배우고 매일붓두겁으로 재여서하로에 한붓두겁길이식 잘다배우는데 그와가티돈한외다으로 여러동무중에「둔쟁이」라는 조롱는 안바든날이 업더라지요

조롱스레분생겨 근면으로성공해

◇이러틋 재조업서 아이어른에게 조롱만밧든 김봉상은분김에 공부하기를 재조잇는아이보담 배나 십배식 부지런히하야 한초 한분이라도 거저노는때가 업서 사략초권을삼년이나 읽고 나니 문리(文理)가차차 들티기시작하야 그후에는 무슨책을 들여대든지 어름에배밀듯이 술술풀리어 책한권을 혹사흘에도 마추어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수년동안에 다읽엇습니다 그뻐마츰 과거(科擧)보인다는 소문을듯고 동천들과 선생을모시고 과거보는길을떠낫습니다 며칠동안 서울로올라오다가 정오에는되고 또다리도 아프고 악흥관에 한정자가 잇슴을발견하고 김봉상은 그정자에올라 다시흥에겨워 시한구를 읍퍼섯는데

湧地灘巖 盈科以後放平海

라고하얏는데 가티갓든 선생은 이글을보고 이번에는꼭봉상이 과거했다고 다짐하얏더니 과연그말되가티 다른 동무와선생은허탕을치고 봉상이혼자급제(及第)를하야 영화스럽게 도문잔치를 베풀고 시골노다려갓답니다 그는실로우리덕원(德源)의 유수한문장인동시에유수하게돈하기도하더랍니다(곳)

投稿者 德源 金日甲
本報 一個月分 進呈

投稿繼續受理

淫亂한日女 産兒를壓殺遺棄

소관룡산서에서는사건을 중대시하고범인을엄탐중

昨朝軍司令部門前에

이십팔일오전 여덟시경에 시내룡산안겅동 삼일번디군사령부(軍司令部)정문압개천에난지수삼일밧게 안되는아이의 시톄를 유기한것을 통행자가 발견하고 소관룡산서에 고발하엿든바급보를접한동서에서는사법주임이하계원 총출동으로 실디검증을하엿는데 영아의시톄는 역시생후수삼일 된것으로 흰포목으로 한번싸고 그다음신문지로 싸서 또다시 붉은모사책보로 쌋고히 고히 싸서내여버린것으로 그시톄를 발견할때는 이미썩썩얼엇스나영아는 귀여운산애 이엇스며소관서에서는사건을매우중대시하고 극비밀에부친후 그부근일대를면밀한실디검사를하고범인을 엄탐중이나 아직은 하등의단서를못어든모양이다하며더욱이그시톄를싼 신문지、포목、모사책보、기타현장증거품을 종합하여보면 유기자는녀라한 일본녀자가부정한 원인으로산아하야 압살한후내어버린듯하다 더라

各處郵便怠慢

강원도김화우편소배달부(江原道金化郵便所配達夫)는 디방우편배달을 태만하하여 출로에서 인편에 전하기도하고 주막집에 맛기고 그집주인이 다려 전하야달라고 부탁도한다고 일반은비난이 만타는데 자세한내용을 들으면 모모김씨국에서 서면 창도리(西面昌道里)의 송원회(宋源會)에게가는것을 울조로의 김만긔(金萬基)집에 다가 맛기어 십여일만에 차젓다고 한다 며편지등을함부로 전하는까닭으로도 풍파가 잇다 하며 배달에 주의하는하는까닭이라고 일반은비난이만타더라(김화)

◇경북영주우편소에서는우편물

重病呻吟中同志慘報 短刀로割胸自殺

남의손에마저죽는이보담 차라리내손으로죽겟다고

모연머원리군일(李君日)외두명이데포되던날은화현이도양자수(化縣二道樑子)에서안상의(安相義)(四四)는 단도로가슴을헤치고 힘리힘리한선혈를 흘리고 처참한최후를 지엇다는데 탐문한바에의하즉 안상의도 역시모연머에가담하야 그미이후보 활동을 계속하던사람으로우연히병이중하야 치료할여망조차 업든바 군 동 자긔의 동지가데포매되 자긔도곳데포될것을생각하고「남의손에죽는것보다내손으로죽겟다」고 하면서어린아이를 시켜칼을가저오라하야 그와가티 자살한것이라더라

孫文未亡人이改嫁해야 『우리도팔자고처』

중국혁명란리의한평화

解放된寡婦의珍陳情

한구(漢口)로부터 북경(北京)에온사람의말을 들으면 무한(武漢)에서는 종래정절당(貞節黨)이라고하야의 탁할곳업는 과부(寡婦)를 수용하는 자선긔관이 잇는데 이는그전 쟝초(蔣潮)때에 량호디방 (兩湖地方)의 신사들의 긔부를바다 증국번(曾國藩) 좌종당(左宗棠) 리홍장 (李鴻章)등의 명사들도 이에힘을써왓스며 긔타일반의 긔부도 또한적지아니하야긔보금이막대하던중혁명군(革命軍)이무한을 덤령한후 묵은습관에 커커쌋나운정숭을 생디옥에 파뭇고 정조를직힌다는 빈명예를 취함은 천부당만부당한일이라하야 전긔 정절당은 해산시키고 수용중의과부들은 전부 해방하야 사십미만의과부는모다재혼(再婚)할것이오 사십이상의과부들은 자긔 자유로 나가서 생활케하엿는데 이와가티 돌연히 밝은세상을 보게된 과부들은 돌이어엇쩔줄을몰랏라 드듸어 손문(孫文)씨의미망인 송경령(宋慶齡) 부인에게 진긔한 진정(陳情)을하엿는데 혁명군들은 송경령부인을 국모(國母)와가티 숭배하는 터임으로 과부들의 진정한 내용들을으면 국모인송씨가맛당히 국내의녀자들의 모범이될것인즉자긔네에게 재혼흔장케치말고송부인부터남편을어더재혼을한다면 자긔네도두말업시남편을어더가겟다함의 노송부인은이를엇더케처리할수가업서혁

회호리바람에 列車가飛上

사상자도만흔모양

東北線의慘事

이십팔일오후한시경에일본부산역(富山驛)을 떠나청삼역(靑森驛)을향하야 렬차는야생역(野生驛)부근을 진행중에맹렬한회호리바람으로말미암아객차삼량이쌔혀올나갓다가떨어지는바람에던복되어다수의사상자를내엇다 더라(부산뎐보)

尙州賭博盛行

근일상주(尙州)디방에는도박이대류행하야 루천원의 독실이자조잇다는데 그도박단은 부호와신사로 일단이되어 도박판을 가지고한다고

남편은나가고 子婦虐待甚해

어린애업고붓장사하는가련한런정녀 혹독히 매운바람이 사람의살을 어일듯한 지나간이십칠일 안주

독긔와몽둥이로 外叔을亂打重傷

형뎨가협력하야혼도케

안주군대니면동오리(安州郡大尼面東五里)에잇는안병승(安炳昇)과그의외삼촌신병호(申炳浩)다자긔의아우명승(炳用)는 사람을독긔와 몽둥이로함부로 란타하야 중상을내엇슴으로 피해자신병호는 가해자인 전긔두생질을어결질단고소를안주경찰서에고소를하엿다는데그 내용을들으면 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는 평소부터 로디관계로항상감정이 잇서오던중지나간 이십이일에는 그동리엇던집에서 안병용이란자가 술을마시고잇다가 겨테안저잇는 술먹는사람에게 강제로 술을권함으로 그의외삼촌이 그무리한술을 뮤지첫나고 평소의 감정이 폭발되어 그자는외숙에게 달려들음으로 신병호는 다른곳으로몸을피하야 잇섯더니 전긔두형제는 동이와 독긔를들고 차저와서그와가티란타하야 긔절까지 하게한것이라더라(안주)

金化僵屍

지난이십이일강원도김화군근남면 륙단리(江原道金化郡近南面六丹里)압논밧독에서 얼어죽은시톄가 발견되엇는데 김화주재소에서 검시한 결과 일흠은 정국삼(鄭國三)이며 나히는오십여세 가량이나되여보히고 원적은 미상하다는데 전긔정국삼은 로동자로 목재운반업으로 화천(華川) 김화(金化)로다니다가 동일륙단리술파는 리씨(李氏)집에서 술을먹고 자긔주인집인 그동리수피동(水皮洞)리경순(李京順)집으로 가다가 길을잘못잡아 무인디경벌판으로 헤매다가 정신업시죽은 모양이라는데 몸에 가지고잇든것은 돈오원사전이 지갑에들어잇고 또목재운반도착증(木材運搬到着證) 이한이십여매가잇섯는데현금오원은매장용비로쓴다고(김화)

三十年間空閨生活 愛子相別도廿年

倚閭之情으로成病한愼氏

＝멀리잇는남편의소식도아득하고 아버지를차저간아들도소식이업서＝

◇녀자로나서 무엇이 애원하다말하는바이냐 상당한남편을 어더안뎡한가정을 일우고 아들딸을두어어려울때에재롱보고늙은후에의지하는것이 데일의욕망이다그러면 남편이잇스나 수십년동안생사존몰을 알지못하고 하야하는를 마음편히 지내지못하고 하고밥만(金여)먹어줄론 열안을리는 적이 업다하면 그무인의신세를 누구인들눈물겨워하지안흘가!

◇강화군 하도면사긔리 (江華郡下道面沙器里)리건중(李建重)의 안해 신씨(愼氏)는 삼십오년전 임진(壬辰)년에 리건중에게로 시집을가서 어려운가뎡에 가진고생을 다격고 남편은 부랑하기 짝이업서노름하기술먹기로직업을삼다 신씨는 한번도정원업시 살림사리를 하엿슬것하야 병신년(丙申年)에 아들(李東)을나엇으나 그후남편은 가출하야 소식이 업고 집은 이러타 하다가 지나고 그아들이자라서 세살되어 에는 싸우고다투고하다가 엇더케 되엇는지 남편은 아주 가버리고 경술년(庚戌年)에 나간후에는 갓금 편지가 오더니 남의집에 얹지어잇는니 ...

◇남편이나 아들이 아조죽고 이세상에 업스면 몰이어 체념도 할것이나 한한하지마는 멀정한사람이 집떠난후에소식조차업서 기다리거든 이십 이업슨에야 신씨의 간장은 다라고 말앗스리라 그러나 오늘까지 그아들뎍하여 근근히 런명하지마는 디하가차차잘 자미잇는 살림을 다시계속하야 아남을 유일뇌 락으로 생각고 어서하로밧비 남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그는 결코 애통하는 신세이다

◇그리든차에 더하가 십오세가되어 ...

(본사)

甕津小火

오후팔시경에 황해도옹진군(黃海道甕津郡)한장찬이란 사람의집에 불이나서 일시는화염이충천하야 일대소동을 이르켯스나 옹진소방대의 진력으로 즉시진화되엇는데 화재의 원인은실화 손해는 크지안타고(옹진)

青總委員會紛糾

新任委員選擧에主張相違

派閥固守派閥超越派兩立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에서는 지난이십륙일 한시부터 시내서대문뎡이뎡목 (市內西大門町二丁目)그회관안에서데이년데사회집행위원회(第二年第四回執行委員會)를개최하얏든바 개회벽두부터 전집행위원회(前執行委員會)가를법립고 해산하고 동일오후 그회는 드되어 시간격돈이잇서 드되어그도 성립이되지못하고 해산하고 말엇는바 부위원들은 다시이십칠일 오후한시에 그회관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전형위원을선정하야 신집행위원과 검사위원을 권형하야 각디방 세포단데에문의하기로하고 동시를발송 하얏다더라

龍岡에 紅疫猖獗

룡강군귀성면(龍岡郡貴城面)에는 지난십일월초순부터 홍역(紅疫)이류행하야 자케들론부형의 근심을 사든바 지난이십사일까지사망한 아동이 삼십여명에 달한다는데 홍역은점점 창궐되어 금곡해운(金谷海雲)량면에도 류행된다 더라(진남포)

團體消息欄

◇靑友獎學會總會 청우장학회에서는오는삼십일 오전열시부터 데이십사회정긔총회를시내봉익동녀동학원(大東學院)에서게최하리라고

平山의 殺人强盜

장보고오는사람을찔러죽여

황해도평산군문무면 (黃海道平山郡文武面) 구손이란동리압에서 흉긔를 휴대한강도한명이나타나 마즘장을보고오는사람을 단도로찔러죽이고 범인은 어데론종적을감추엇스나이급보를듯고 관할금주경찰관주재소에서는비상소집을하야 본서의 응원을바다 활동한결과 범인은곳데포하얏다는데 이제그 자세한내용을 드른즉 동면물안리(同面物安里)에거주하는박창호(朴昌浩)(三〇)란사람으로 음력십이월십팔일 문구장에갓다 오는 길에 종로구손이압산모통이 무인디경을 지나다 참사를 당한것이라더라(한포)

今日

最近의中國動亂을目睹한 獨、伊兩青年世界一週講演會

午後七時 鐘路青年會館에서 (入場料二十錢)

主催 中央基督教青年會 朝鮮日報社

一月二十六日封切 名作 嘆息하는百合 全八卷
◆파라마운트超特作映畵 情熱의戀愛篇 驛馬車 全十卷
特別豫告 一婦二夫 全二卷 海上將軍 全七卷 結婚速達便 全八卷 안해를注意 全八卷 행낭뒤골새부자소동
金色의寢床 全九卷 벼란간海賊 全九卷 달마되씨 特作映畵 ???? 全七卷
◆一月二十七日부터特別大興行 放浪者 全十卷
喜活劇 호리우-드 全七卷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當一月二十二日土曜夜間부터 ●大公開 特選名畵特別大公開
로빙훗도 全十一卷 / 뭉큐- 全八卷 / 폭쓰時報 全一卷 / 虛榮地獄 全八卷 / 轟鐵蹄 全七卷 / 鐵腕險 全八卷 / 自由戀愛 全八卷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桃色의밤이기혼뒤 八卷 / 시립신키-키 九卷 / 사치한게집애 九卷 / 케닉스마-크 十四卷 / 세-도구 十八卷 / 업센이 二卷
朝鮮劇場 電光二〇五〇番